

아이 낳기 힘든 전남... 22개 시·군중 8곳만 분만산부인과 운영

아이기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뒷

<14> 산부인과 찾아 100리길

임산부 광주 등 대도시 원정출산 고충
병원 운영비 지원·찾아가는 산부인과
전남도 분만 취약지역 다양한 지원책

“가깝게는 나주·화순·담양은 물론 저 멀리 완도·진도에서 오시는 산모들도 계세요.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병원에 최소 10번은 오셔야 하는데 부담이죠, 그분들에게는.”

광주 에덴병원 박윤희 간호부장이 21일 광주일보에 전한 내원 환자 지역분포를 보면, 전남 임산부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남지역 임산부들이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산부인과가 드물어 광주로 원정출산 내지 원정진료를 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임산부들은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산부인과가 있어 언제든 병원 방문이 가능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의 경우 마음을 먹고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큰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남도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분만산부인과는 전남 22개 시·군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강진 고흥 해남 영광 등 8개 시·군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다. 나주 구례 화순 보성 장흥 무안 함평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은 진료할 수 있으나 분만은 불가능한 곳이다. 곡성, 영암, 장성, 신안 등 4개 군은 아예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산부 등은 멀리서 광주 또는 인근 시·군 산부인가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 형편이다.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취약한 의료환경은 전남지역 출산율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지역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용부담과 별개로 아이 낳으러 100리 이상을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저출산과 연관된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 보성 고흥 강진 함평 영광 해남 완도(2곳), 진도 등 8개 지역을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다. 강진외로 원, 고흥종합병원, 영광종합병원, 해남종합병원 등 분만산부인과가 운영 중인 지역에는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정부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완도대성병원, 진도한국병원, 보성아산병원, 함평성심병원 등 외래 산부인과 4곳 역시 병원 운영비를 보조한다. 완도대성병원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진료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른바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전남도가 집행하는 비용은 국비 포함, 연간 30억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곡성 영암 장성 신안지역을 대상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찾아가



해남군청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0일 해남군 해남병원에서 분만산부인과 개소식을 열고 있다. <해남군 제공>
는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다. 목포시의료원에 위탁, 월 2회 이상 해당 지역을 찾아가 임산부 진료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감사항목은 기본 진찰,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으로, 임산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남도는 전하고 있다.
출산 후 몸조리하는 것도 산모에게는 중요하다.



강진의료원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문 열어

10개 산모실·마사지실·좌욕실 갖춰
산후관리 교육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강진의료원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이 들어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에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은 615㎡ 규모로, 10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마사지실, 좌욕실 등을 갖췄다.

강진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모 돌봄센터에서 산후 체조, 산후 관리 교육, 우울증 예방, 모빌, 이유식 만들기 등 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영유아실 양압력 리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은 이용료의 70% (107만8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축복이 되는 지역 사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출산 축하방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아이기가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idream@kwangju.co.kr

“출산팀 꾸려 임신서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김미경 보건소장에게 듣는 해남군 출산율 전국 1위 비결

전남도 1호 공공산부인과 개설
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고장 자리매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바로 해남군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 발표한 통계청 조사에서 5년 연속(2012~2016년) 합계출산율(2.42명)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군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2.1명)을 넘어선 유일한 지역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전남도 1호 공공산부인과가 개설됐고 올해 초에는 분만산부인과도 개설돼 운영에 들어가는 등 아이 낳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 출산정책을 주도하는 김미경(사진) 보건소장에게 합계출산율 1위 고장이 되기까지의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합계출산율 5년 1위 기록, 비결은 뭔가.

▲저희가 2008년 전국 최초로 군청 내에 출산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온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출산정책 포럼을 여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올 1월 운영에 들어간 분만산부인과는 어느 규모이고 어떤 반응인가.

▲우선 이제 더는 임산부들이 광주나 목포 순천까지 아이를 낳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읍내 해남병원 내부에 들어선 분만산부인과는 분만실과 수술실, 산모실, 신생아실 등 시설을 갖춘 376.41㎡(114방) 규모다. 정밀초음

원한 데 이어 이번 분만산부인과 개설로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출산정책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남군의 출산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면?
▲크게 세 가지다. 의료시설 구축, 임신·출산 경비 부담 경감, 감성정책 등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산모아기사랑 태배사업은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소고기, 미역, 숙육을 보내드리는 사업이다. 감성적으로 다가가 출산을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역시 2011년부터 신생아 보험료를 5년간 납입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도 국비에 더해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작명도 작명가께서 재능기부 해주고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주고 있다.

-출산 장려금도 출산율을 높인데 기여한 것 같다. 지원금은 어느 정도 인가?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을 양육기간 분할 지원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지난 4월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해남출산정책 미래설계를 위한 포럼’. <해남군 제공>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